

사회복지시설 탐방 34 나눔과 사랑의 집원장 김 말 레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사랑과 온정 절실

“나눔과 사랑의 집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신으로 고생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게 남은 여성의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포천시 자작동 245-1번지에 위치한 나눔과 사랑의 집은 지난해 10월 11일 개원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돌보는 전문요양원을 지향한다.

나눔과 사랑의 집은 나누며 사랑하는 교회(목사 강명목)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소속으로 1999년부터 포천시 자작동에 동지를 열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등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선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강명목 목사와 부인인 김말레 원장이 장애인복지회의 주선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목회활동을 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포천까지 이어서 나눔과 사랑의 집을 설립하게 됐다.

김말레 원장은 “처음 1명의 중증장애인을 모시고 시설을 시작했으나, 시설운영의 물질적 어려움과 홍보의 부족으로 현재 8명의 중증장애인 및 노인을 모시고 있다”며 “이들 중 2명은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입소자가 시설을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현재 물질적인 도움이 부족하고 홍보가 미비해 실제

2명과 수급자 6명의 중증장애인과 노인 입소해 생활하고 있으며, 실비의 경우 한달에 5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시설은 교회와 요양시설로 구성돼 있으며, 요양시설의 경우 입주 당시 50명까지 입소해 생활할 수 있으며, 입소자에게는 2인1실의 방과 욕실,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현재 시설의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샷시나 마감 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설의 입소는 가정형편상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자나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가족, 환혼기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자가 대상이다.

김 원장은 “시설의 입소는 주로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정형편상 재택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 및 노인이 해당된다”며 “입소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사정에 처한 노인 및 중증장애인이 입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과 나눔의 집은 입소자들을 위해 맛사지, 침뜸, 경락, 카이로, 전문치유 등의 건강관리와 뜨개질 등 취미생활 장려, 정결한 시설관리를 통한 복리후생 및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한 위생서비스, 가정식 식단으로 관리하는 급

식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시설은 원장인 김말레 원장과 강명목 목사, 집사 1명이 운영하고 있다.

김 원장은 “현재는 입소자들의 위한 건강관리, 여가선용, 위생 및 급식관리 등의 서비스 실시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으나, 집진적 전문인력의 배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1999년부터 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사랑과 나눔의 집에는



포천시 자작동 245-1번지에 위치한 나눔과 사랑의 집은 지난해 10월 11일 개원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로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돌보는 전문요양원을 지향한다. (원인: 김말레 원장(좌)과 강명목 목사(우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정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있다.

김 원장은 “경복중학교와 포천여중, 산악모임인 녹색회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오고 있는데, 특히 녹색회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목욕봉사를 와 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시설에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목욕봉사뿐 아니라 말동무에서부터 빨래, 이·미용 봉사 등 각계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10월 포천시에 신고시설로 등록을 준비중인 나눔과 사랑의 집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부족한 운영을 위한 후원과 각종 봉사활동, 미비된 건물의 완공 등 많은 부분을 해결해야만 한다.

김 원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봉사나 후원이 남치는 시설과 부족한 시설의 빈부격차가 느껴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현실”이라며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 속에 사랑과 온정이 사랑과 나눔의 집에도 닿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 : 농협 225818-51-020331(예금주: 나눔과사랑의집) 문의 : 031-536-9106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 심터

과거 현재 미래

재밌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수수께끼 한토막이다.

세 형제가 한집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정말 다르게 생겼다. 하지만 구별해서 보려고 하면 하나는 다른 둘과 똑같이 보인다. 그중 첫째는 집에 없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며, 둘째는 벌써 집을 나갔고 셋 가운데 막내, 셋째만이 집에 있을 뿐이다. 문제는 셋째가 없으면, 다른 두 형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셋째는 정작 첫째가 둘째로 변해버린 있을 수 있다. 이 형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세 형제는 하나일까 둘일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바로 시간을 말한다. 첫째는 미래이고 둘째는 과거 셋째는 현재를 말한다.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



석혜승  
보문정사 주지

시간을 임의로 규정되었을 뿐 셋도 둘도 아닌 하나일 뿐이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과거는 지나갔으며 오직 현재의 연속일 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생산된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랑도 미움도 언제나 그 시현은 현재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 집착 말라. 꿈꾸지 말라 오직 가슴 설레며 꿈꾸지 말라 오직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세 형제는 하나일까 둘일까?

필자 연락처 031-542-0032

포천신문 창간 16주년 기념 祝詞

오랜 전 포천신문 포천 여성관에 일곱 번째 야기로 소개된 바 있어 인연을 갖은 김서연입니다.



김서연  
시인  
월간 문학세계 단문

많은 신문들이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왔다 작게 사리저 같 때에도 포천신문은 제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봉투를 거절하는 기개를 가져왔어 선택 타협하지 않았음으로 언론의 참 모습을 지켰습니다.

최효열 사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정의 맘을...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낭설로 시달렸을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이들 때문에 그저 소리 없이 접고 싶으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포천신문 가족분들 그 누구 못지 않게 갈등의 굴곡을 신문이라는 어찌 할 수 없는 버거운 땅에 와 같이 하셔야 하겠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기인지 고집인지 아직은 개인적으로 검증한 바 없으니 이렇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심을 오늘 창간 16주년을 기념해 유유히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기도 고집도 아닌 진정한 언론인의 자세로 일관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런던타임즈 초창기 시절 그랬습니다. 전쟁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보도했음에도 그것으로 인해 갖은 아우와 발간된 신문이 팔리기도 전 불태워지는 수모를 감내해야

했지만 사실을 돈과도 명예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곧 누군가의 입맛을 위한 보도가 아닌 알력을 위한 신문이 되지 않음으로 시간의 심판결과 옮겼다는 확증과 그 만큼의 지지도와 사랑을 오랜 세월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의 세월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세월도 그와 같을지는 모르나 16주년 26주년 36주년에도 이렇게 다시 베풀 수 있다면 정말 그 모든 것에서 당신이 승리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아름답진 않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의 잣대만이 통하는 민심과 현실을 그 누가 돈이나 권세로 사겠습니까?

사라져 버리고 마는 재력도 정치적 권력도 누군가의 기득권을 위한 권모술수도 아닌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거짓 없는 역사의 기록 신문의 뜻을 수습하 목욕히 펼쳐서 언론에게 가장 강렬한 버팀대인 민심에 지지와 사랑 받는 포천신문으로 거듭나시길 진정 바랍니다.

비록 작지만, 약하지만, 청빈하지만 이렇게 포천신문을 지켜보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독자가 아주 많이 있음을 알리며 이 글을 최효열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바칩니다.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대통령표창 受賞  
경기도 종합결산대회서 각 부문 우수한 평가받아



2005 경기도새마을운동 종합결산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회원들이 연말발우이웃돕기 10월 동전모이기 행사장에서 발전을 다짐했다.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지회장 강태선)가 지난 15일 오전10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개최된 '2005 경기도새마을운동 종합결산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새마을운동의 한해를 결산하고 각 지회간 화합과 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는 ▶포천시지회가 단체상으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행정부장관표창에 이준태 ▶중앙회장표창에 오은자 ▶도지사 표창에 김영석, 유경림 ▶도회장표창에 김경숙, 이방목이 수상했고, 새마을운동종합평가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문에서 우수상 ▶새마을부녀회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대통령상(단체)을 수상한 포천시지회는 ▶1999년 11월 새마을운동종합평가 근면상 ▶2000년 2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장려상 ▶2000년 12월 2000새마을지도자대회종합평가 장려상 ▶2003년 11월 경기도새마을지도자한민대회 준우승 ▶2004년 5월 원지재 대관 고철모 기 장려상 ▶2004년 11월 이동도서 관 운영부분 우수상 ▶2004년 12월 2004년도 경기도평가 1위 ▶2005년

2월 2004년도 전국새마을평가 1위 수상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공적내용으로는 ▶총 10회 8만kg의 쌀을 1만명에게 전달했으며, 12만포기의 김장을 총15회에 걸쳐 3천가구에 전달했고, 수해복구지역에 10회에 걸쳐 1천500만원의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과 ▶50가구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140가구에 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독거노인 연탄나누어주기 ▶이동도서관 및 문고운영을 통해 낙후지역 10개소 3천권의 양서전달, 알뜰도서 교환시장 등 독서인구저변확대 ▶연2회 500톤의 폐품수집을 통한 환경살리기 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주말자정화활동, 맑은물 지키기캠페인 등 자연보호활동 전개 ▶연20회에 달하는 새마을 방역활동 ▶연5회 동안 500명이 참여한 실시한 나라사랑 국기달기, 연2회 실시한 무궁화심기 사업 등이 높게 평가받았다.

강태선 지회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대통령표창은 포천시새마을지회가 그동안 펼쳐온 사업에 대한 공을 인정받은 쾌거로 이번 수상이 지회발전과 회원단합, 봉사를 더욱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연탄으로 피우는 사랑의 온정”

포천·상록수라이온스클럽 불우노인 연탄지원

포천라이온스클럽(회장 김형석)과 상록수라이온스클럽(회장 이명희)가 관내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에게 연탄을 지원해 주는 등 온정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국제라이온스클럽 354H지구의 지원과 포천라이온스클럽과 상록수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연탄지원은 포천라이온스

클럽 창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연탄나눔 행사로 회원들은 지난 9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독거노인, 수급자 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 30가구에 각 300장씩 연탄을 배달했다. 김형석 회장은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은 이번 연탄나눔 행사를 클럽의 기본 정신인 봉사정신에 입각해 즐거운 마음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에 배달된 연탄으로 관내 불우노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초대민선 교육장 권기하 옹 별세

‘포천의 큰 어른’으로 교육계 大父

8.15 광복 후 최초로 실시한 대한민국 제1회 중등국어교사 검정고시에서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해 전 재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평생을 포천의 후학양성을 위해 오직 포천에서만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권기하 옹이



권기하 옹

한편 97세로 지난 9일 4시27분에 별세했다. 고인은 포천시 소흘읍 고도리 437번지에서 태어나 경기고 등사법학교(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전신)를 졸업하고 송우초등학교 교감, 포천 민선 초대, 2대 교육장, 동남중·고등학교 교장, 포천군교육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일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인의 가르침을 받았다. 고인은 우리나라 교육분야 발전에 진력해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1973.8.29)을 수상했으며 1970년에는 일선교육행정의 중책을 창의와 노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초등교육 개선에 대한 공로로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예절교육 통해 마을화합 다져

가산면 마전2리 마을노인 예절교육

포천시 가산면 마전2리(이장 이윤근)는 지난 17일 마을회관에서 이구상 전 포천고등학교 교장을 초빙해 마을노인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연말에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종식을 제공하는 일을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마전2리는 올해 특별히 이구상 전 포천고등학교 교장을 초빙, 노인들이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부녀회(회장 윤재숙)에서 손수 만든 두부를 종식으로 대접했다.

이봉규 가산면장, 김영오 포천시의회의원, 노인 30여명 등이 참석한 이날 예절교육은 오전 11시부터

민영봉 마전2리 민영봉 노인회장의 인사 및 이구상 강사에 대한 소개, 1시간 가량 소요된 이구상 선생의 예절강의, 오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장은 “단순히 마을 노인들을 모시고 종식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면 연말 마을잔치를 올리는 특별한 예절교육과 더불어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이번 예절교육이 주민 화합과 단합, 경로효친의 사상을 이어가는 계기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절교육이 실시된 후 박운국 포천시장이 마을을 격려차 방문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가산면 마전2리는 지난 17일 마을회관에서 이구상 전 포천고등학교 교장을 초빙해 마을노인 예절교육을 실시했다.

“봉사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지난 16일 개최된 자혜의 집 봉사자의 밤 행사에서 양로원 어르신 노래교실팀이 한해동안 갖고 두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자혜의 집 봉사자의 밤 개최

자혜의 집(이사장 이종해)은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양로원 식당에서 '2005년도 자혜의 집 봉사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200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한해동안 자혜의 집(양로원·요양원·점문요양원)을 몸심양면으로 지원한 관내 유관기관 인사 및 단체, 자원봉사자들을 초청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단체 인사,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행사는 한해동안 각종 프로그램 통해 제작된 입소 노인들의 작품을 양로원 식당 앞 복도와 현관에 전시한 가운데 홍보영상을 상

영, 내빈소개, 서도소리 정이순 지부장과 의정부성모병원간호사 팀, 우목정에 대한 감사패 증정 및 이종해 이사장과 이숙희 원장, 최영식 원장에 대한 노인작품인 백조 증정, 감사공연(양로원 어르신 노래교실팀, 양로원 어르신 풍물놀이 팀, 요양원 직원 공연), 최영식 원장의 건배제, 식사 및 어울림 한마당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한해동안 자혜의 집에 입소한 노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각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속에 더욱 발전하고 거듭나는 노인복지시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